

## 나이팅게일 선서식 의례 연구

어용숙\* · 이지원\*\* · 장소은†

(\*동의대학교 · \*\*부산카톨릭대학교 · †경성대학교)

### A Study on the Nightingale pledge rituals

Yong-Sook EO\* · Ji-Won LEE\*\* · So-Eun JANG†

(\*Donggeui University ·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 †Kyungseong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xperience the Nightingale pledge rituals of nursing students. Rituals are how people have always passed on their value system to the young, the next generation. Data were collected using focus group interviews and participant observations from 2012 to 2014. First researchers attended and observed Nightingale pledge rituals. And the three focus group interviews were held with a total 22 nursing students participating. All interviews were recorded and transcribed as they were spoken, and data was analyzed using ethnography methodology. The results were the participants experienced the nurse identity and connectedness with others through Nightingale pledge rituals. Also, they experienced "a river that can't be crossed," thus go through a transition stage such as a rite of passage with a firm determination on their nursing career. The Nightingale pledge rituals allowed to the nursing students close relationship and the sense of community by going through ritual procedures.

**Key words** : Ritual, Nightingale pledge, Nursing student

#### I. 서론

최근 의례에 대한 관심은 종전의 종교나 신화에서 행하여진 일정한 형식의 틀을 넘어서 공동체의 정체성과 자기규정을 드러내기 위하여 상징적으로 코드화된 연행적 행위 속에서 생겨나며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집단정체성의 형성(Wulf, 2010)을 지향하는 것으로 강조되고 있다. 즉, 의례는 공동체의 결속을 복원하고 강화하는 기제로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Durkheim(1992)은 의례를 개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속한 사회를 결속시키는 유대감을 강화하는 '종교적' 수단이자, 사회적 집단이 주기적으로 모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실제로 공동체를 표현하는 성스러운 이미

지를 투사함으로써 긴장, 흥분의 감정을 유발하도록 하는 매개로 간주한다. 의례행위는 가속화되는 개인화와 점차 커져가는 삶의 추상화와 가상화속에서 정체성과 공동체, 질서와 안전의 상실을 보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Wulf, 2010). 반면 의례를 반드시 종교적이지는 않는 행위들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지닌 사회적 행위로 파악하여 종교나 제도와 더불어 사회적 행위의 '사회적 에티켓'으로 간주할 것을 제시한다(Jeun, 2012).

의례를 정의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하는데 의례를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수단,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전수하며 내면화하

† Corresponding author: 051-663-4499, naturejse@naver.com

는 수단 등으로 개념화하고 있다(Yoon, Yi, 2014). 의례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관점에서 의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종교, 의례, 그리고 신화 사이의 관계를 강조하는 접근이며 19C말 신학과 민속학 분야에서 성장하였다. 여기서는 종교와 신화가 우주질서 속에서 인간의 삶을 확립하고 지속성과 일관성을 제공해 준다는 것으로 의례의 의미를 설명한다. 둘째, Durkheim(1992), Genep(2000), Turner(2005)의 관점으로써 의례에 관한 이해이며 이 접근법은 사회구조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의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는 의례의 사회적 기능에 중심을 두는 접근법으로 의례는 제도와 사회조직의 절차를 구조화하고 질서화 하지만 또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셋째, 사회의 문화적, 사회적 변화를 설명하기 위하여 텍스트로써 의례를 읽는 접근법으로, Geertz(1973), Sahlins(1976)의 연구관점이다. 여기서 연구의 목적은 문화적 상징화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으로 의례의 상징적 코드를 읽고 해석하여 문화적 의미를 이해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Bourdieu(1977), Wulf(2010)의 연구관점으로써 의례의 연행적 측면, 즉 실천적, 재현적 측면에 관련된 것이다. 이는 의례의 연행성이 의미하는 바에 관한 것으로, 의례가 공동체를 창조하기도 하고 의례의 연행이 이루어지는 동안 새로운 사회적 실체가 창조되는 것과 의례의 연행에서 신체성에 관한 의미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Wulf, 2013). 이러한 의례의 역사적 관점에 따라 20세기 이후 의례에 관한 관심은 보다 생산적인 사회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즉, 의례는 사회적 행위의 중요한 형태로서 다시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의례가 정체성, 공동체 질서, 그리고 사회의 일련의 규칙과 절차에 관여함을 강조하고 있어 현대적 관점에서 의례를 다시 재조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나이팅게일 선서식 의례는 1893년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시 화레나(Farrana) 간호학교의 위

원회에서 나이팅게일 선서를 작성하여 이를 졸업식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것으로부터 유래를 찾을 수 있다(Miracle, 2009). 나이팅게일 선서는 그 당시 간호사의 직무와 이미지를 반영하여 작성되었고, 간호전문직의 비전과 가치를 포함한 사명이 진술되어 있으며(McBurney, Filoromo, 1994), 나이팅게일 선서식 의례는 간호전문직의 사명을 다짐하는 하나의 의식으로 볼 수 있다. 나이팅게일 선서식 의례에서 중요한 선서의 내용은 오늘날에도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면,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의 보장, 환자의 권리보호 및 옹호자로서의 간호사의 역할은 미국의 간호협회를 비롯하여 한국의 간호협회의 윤리강령에도 반영되어 간호전문직의 직업정체성과 직업윤리 등의 지침이 되고 있다.

오늘날 나이팅게일 선서식 의례는 간호대학생의 졸업식이나 임상실습을 나가기 전 의식의 하나로 간호교육기관에서 적용되고 있다. 각 간호교육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약문이 통일되지 않아 한국의 경우 1988년 대한간호협회 대표자회의를 통하여 통일 번역 문안을 마련하여 확정하였고(Go et al., 2011), 이를 현재 전국 대부분의 간호교육기관에서 통일된 나이팅게일 선서문을 나이팅게일 선서식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통해 볼 때 나이팅게일 선서식 의례는 근대 간호의 기틀을 마련한 나이팅게일의 사상을 이어받고,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간호사의 직업정체성을 다지는 간호교육의 장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의례적 관점에서 조망하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의례에 대한 개념은 간호학 분야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지 않고 있다. 이는 간호전문직이 종교로부터 간호를 분리하기 위하여 150여년이 넘게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종교적인 특성을 가진 의례를 간호와 분리하려는 노력이 진행되었다(Catanzaro, 2002).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학에서는 의례가 간호사의 가치와 신념을

확고히 하는 데 도움을 주며(Wolf, 1993), 알려진 것(known)과 알려지지 않은 것(unknown)의 연결고리로써의 의례의 기능 등에 주목하기 시작하고 있다(Catanzaro, 2002).

이에 본 연구는 의례가 지니는 다양한 측면과 특히 의례의 긍정적인 측면을 주목하는 현대의 역사적 맥락에서 나이팅게일 선서식 의례를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또한 간호학과 학생들이 간호교육의 장으로서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경험하면서 나이팅게일 정신을 이어받고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직업정체성을 형성하는 무형식 학습과정으로서의 의례 경험에 관하여 탐색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를 위하여 연구자는 단일 사회적 상황에 관한 미시적 문화기술지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참여관찰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문화기술지 연구방법은 기존의 양적 연구방법에 의해 드러나지 않은 나이팅게일 선서식 의례를 보다 구체적이고 맥락적인 상황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2개의 광역시와 1개의 시에 소재한 3개의 간호학과에서 수집하였다. 연구자들은 3개의 간호학과에서 나이팅게일 선서식이 실시되는 동안 참여관찰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개별 인터뷰를 보조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연구자들은 문화기술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 방법론을 수강하고 질적 연구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결과물을 학회지에 출판한 경험이 있다. 또한 의례에 관한 주제로 질적 연구 방법론을 적용하여 박사학위를 수여 받은 연구자도 있다.

### 1. 연구대상지의 선정

문화기술지 사례연구를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개의 간호학과에서 실시하는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이곳을 연구

대상지로 선정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2곳의 간호학과는 간호학도가 개설 된지 40년 이상 된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간호학 전공영역에서 입지도가 높은 편이다. 이러한 공통점이 있지만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이라는 학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이팅게일 선서식 의례를 함께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 판단되었다. 둘째, 1곳의 간호학과는 역사가 5년이 갓 넘은 신생 간호학과로서 오래된 역사를 가진 학교와 나이팅게일 선서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기 위함이다. 셋째, 본 연구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를 한 경험이 있고,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직접 책임을 맡아 진행한 경험이 있어 이곳의 의례를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기술지 연구에서는 제보자와의 라포 형성이 중요한데, 연구자가 간호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고 있는 학과의 제보자와 친분이 있어 연구자들이 제보자로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들은 기꺼이 그 역할을 수락하고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은 연구자의 학생으로서 자발적 동기가 어려운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 모집을 학과계시관에 올려 자발적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대학의 학생들의 인터뷰는 그 대학에 소속되지 않은 다른 연구자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 2. 참여관찰

본 연구를 위하여 참여 관찰은 2012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진행되었다. 문화기술지 연구에서 참여관찰은 현지에 가서 직접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여 경험하면서 사건들에 대한 느낌을 얻고, 관찰한 것을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연구자들은 나이팅게일 선서식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관찰과 기록을 하였다. 참여관찰은 연구자들이 현장노트를 직접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사

진촬영을 하였다. 또한 나이팅게일 선서식 의례는 3개의 학과 모두에서 비디오로 촬영되었는데, 촬영된 비디오를 제보자로부터 구하여 행위자들의 표정, 장소, 활동 등을 중심으로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였고, 보충적이거나 심층적인 자료수집이 요구되는 사항은 메모를 하여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 3. 인터뷰

인터뷰는 연구자가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관찰 대상자의 마음속에 담고 있는 내용이나 직접 참여하지 못한 사건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의례의 상호작용적 특성을 잘 파악하기 위하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주 면접방법으로 선정하였으며, 나이팅게일 의례에 참여한 학생 및 교수 등의 제보자를 통해 수시로 심층적인 면접을 실시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참여자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학내 게시판에 인터뷰 참가자를 모집하였으며, 총 22명의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이들을 문헌에서 제시하는 적절한 포커스 그룹 인원인 7~10명을 고려하여(Kim et al., 2000) 3개의 포커스 그룹으로 나누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1개 대학의 소강의실에서 이루어졌는데, 이곳은 대학원 학생들의 세미나실로 활용하는 곳으로, 안락한 소파가 놓여 있고, 편안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다과를 준비하였다. 인터뷰 시간은 학생들의 수업이 모두 끝난 오후 시간에 이루어졌으며, 면담학생들이 소속되지 않은 대학의 연구자 2명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를 하기 전 참여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수행 동의를 구한 후, 인터뷰 진행직전에 녹음여부에 대한 승낙을 받고 시작하였다. 인터뷰 질문의 주요 내용은 “나이팅게일 선서식 의례에 대한 경험과 의미는 무엇인가?”이다. 인터뷰에 소요된 시간은 각 그룹 당 1시간 30분~2시간으로 총 5시간이었다. 참여자들은 모

두 간호학과 2학년 학생으로, 학생들의 수업일정에 맞추어 3개의 그룹으로 나누었다. 전체 참여자 22명 중 남학생이 3명이었으며, 연령은 평균 21.4세 이었다(Table 1).

면담이 끝난 후 녹음된 인터뷰 내용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사하였으며, 전사할 때 참여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신원과 관련된 개인정보는 모두 삭제하고 별도의 고유번호를 부여하였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22)

Group	Participants	Sex	Grade	Age
A	1	Female	2	21
	2	Female	2	21
	3	Female	2	21
	4	Female	2	21
	5	Female	2	21
	6	Female	2	21
	7	Female	2	21
	8	Female	2	22
	9	Female	2	21
B	1	Female	2	21
	2	Female	2	23
	3	Female	2	21
	4	Female	2	21
	5	Female	2	21
	6	Female	2	21
	7	Female	2	21
C	1	Female	2	21
	2	Female	2	21
	3	Female	2	20
	4	Male	2	23
	5	Male	2	23
	6	Male	2	23

### 4. 자료 분석 및 연구의 타당성 확보

관찰과 기록에 의해 수집된 자료는 일차적으로 의례의 절차, 상징물, 연행적 행위 등을 검토하는 차원에서 분석되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3개 대학의 나이팅게일 선서식 의례의 공통적인 과정과 차이점을 추출하였다. 인터뷰 자료 분석은 인터

뷰 종료 후, 당일 컴퓨터에 전사함과 동시에 시작되었다. 인터뷰를 중심으로 참여자들이 의례를 어떤 의미로 규정하고 있으며, 간호학과에서는 어떤 측면에서 나이팅게일 선서식 의례를 지속하는지를 탐색하였다. 연구자들은 자료의 분석과 새로운 자료의 수집을 반복하면서 나이팅게일 선서식 의례 문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주요 진술문을 확인하였으며,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주요 진술문을 확인하였다. 확인된 주요 진술문을 다시 읽으면서 그 의미의 적절한 표제가 될 수 있는 개념이나 문구를 기록하여 개방코딩 목록으로 작성하였다. 개방코딩 목록에 포함된 개념이나 문구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비슷한 것을 통합 한 후, 그 의미에 적합한 명칭을 부여하였다.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였다. 특히 연구자의 주관과 편견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노력하였고 참여자의 구술내용을 있는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이들의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 의미 있는 개념과 문구를 추출하였다. 최종 분석된 내용은 포커스 그룹 참여자로부터 분석 결과가 인터뷰 내용을 잘 반영하였는지를 확인하였다.

### Ⅲ. 연구 결과

#### 1. 나이팅게일 선서식 의례의 진행과정

나이팅게일 선서식 의례 과정은 대학교나 학과의 교육철학이나 이념 등에 따라 공통적인 과정도 있으나 대학교의 특성을 반영하여 진행과정에서 차이를 나타내는 부분도 있다.

먼저, 나이팅게일 선서식 의례의 3개 대학의 공통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Figure 1). 공통적인 의례 절차는 의례 전 예행연습, 본 의례과정, 의례 후 축하공원의 순으로 진행된다. 예행연습은 보통 3~5회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본 의례의 절차 그대로 진행되는 리허설 같은 연습

이 2회 정도 수행되며,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연습을 하거나 교수의 지도하에 의례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촛불점화, 줄맞추어 입장하기, 나이팅게일 선서문 낭독 등 부분적이고 집중적인 연습이 이루어진다.

본 의례과정은 크게 의례식의 시작 의식과 촛불의식, 마침 의식의 3단계로 구분된다. 시작의식은 나이팅게일 선서식의 시작을 사회자가 알리며, 대학의 총장이나 이사장 등 대학의 최고관리자가 나이팅게일 선서식에 대한 축사를 한다. 3개의 대학 모두 대학의 기관장 또는 대표인 총장이나 이사장이 나와 축사를 하였는데, 이는 간호학과 대학내의 위상뿐 아니라 나이팅게일 선서식 의례가 간호학과의 대표적인 행사임을 말해준다. 종교재단의 한 학교는 나이팅게일 선서식 시작 의식을 봉헌미사로 진행하였는데, 이는 학교의 미션, 특성에 따라 의례가 조금씩 다른 형태로 변형되어 운영됨을 알 수 있다. 나이팅게일 선서식의 본 행사인 촛불의식은 먼저, 나이팅게일 선서 학생들이 간호학과 선배로부터 촛불을 점화 받고, 이어서 나이팅게일 선서문을 낭독한다. 간호학과 선배로부터 촛불을 점화 받는 방법은 3개 학교가 각각 차이가 있었는데, 임상실습을 하고 있는 3학년 또는 4학년 선배가 나이팅게일 선서학생들이 서 있는 자리에 촛불을 나누어 주기도 하며, 선배들이 먼저 단상에 있는 촛불대에 불을 붙이고 선서생들이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면 강단에 나와 촛불을 붙이기도 하였다. 이때 선배들의 복장은 실습복 혹은 나이팅게일 시대에 나이팅게일이 입었던 복장을 그대로 재현한 의복을 입기도 하였다. 촛불봉헌대를 마련하여 불을 붙인 촛불을 봉헌하는 학교도 있었는데, 종교적인 의미에서 봉헌은 하느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하며, 받은 은혜의 감사를 드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촛불은 나이팅게일의 등불을 상징하며, 이를 이어 받는 촛불의식은 나이팅게일이 크림미아 전쟁 때 등불을 들고 부상 입은 병사를 밤낮으로 간호하던 희생, 봉사 정신을 이어

받자는 의미를 가진다. 이런 정신을 다시 새기기 위하여 나이팅게일 선서문을 선서생 모두가 봉창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는 일생을 의롭게 살며, 전문간호직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하느님과 여러분 앞에 선서합니다.
- 나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 나 하지 않겠습니다.
- 나는 간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겠으며, 간호하면서 알게 된 개인이나 가족의 사정은 비밀로 하겠습니다.
- 나는 성심으로 보건의료인과 협조하겠으며, 나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의례과정의 마지막은 마침 의식으로 마무리 된다. 촛불을 끄며, 학교의 교가 등을 부르면서 선서식을 마무리 한다.

의례 후 축하식으로 후배들의 축하공연이 이루어지며 참석한 부모 및 친구들이 꽃다발과 선물을 증정하면서 모든 의례가 종료된다.

나이팅게일 선서식 의례에서 사용되는 상징물은 나이팅게일 선서식이 가지는 의미를 극대화하는 하나의 인공물(artifacts)으로써 중요한 기능을 한다. 대표적인 상징물로는 촛불, 나이팅게일 복장, 캡, 나이팅게일 휘장 등이다. 앞서 촛불은 나이팅게일의 등불을 의미하며, 대부분의 나이팅게일 선서식 의례를 촛불의식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가장 대표적인 상징물이라 할 수 있다. 나이팅게일 복장은 나이팅게일 시대 때 실제적으로 나이팅게일이 입었던 복장을 그대로 재현한 의복을 입었는데, 소매와 칼라에 간단한 하얀 레이스 장식이 가미된 검은색 원피스와 머리에는 기독교 시대 여집사들이 썼던 미사포(deaconesses)를 썼다. 미사포는 이후 간호사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물인 캡(nursing cap)으로 발달되었다(Wikipedia, 2015). 나이팅게일 휘장은 대한간호협회 창립 80년인 2003년에 제작되었는데, 한국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의 비전, 위상, 전통을 나타내는 상징물이며, 날개를 펴고 있는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

으로 살아있는 생명을 의미하며 건강을 상징한다. 나이팅게일 휘장은 간호사와 간호학생을 상징하는 2개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는데, RN과 SN은 각각 ‘Registered Nurse(간호사)’와 ‘Student Nurse(간호학생)’의 이니셜이다. 나이팅게일 선서식 의례에서는 SN이 새겨진 휘장을 달며, 졸업 후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면 RN이 새겨진 휘장을 달게 된다. 휘장을 선서식에서 다는 이유는 선서식을 하고 앞으로 간호사가 될 학생들로 하여금 간호전문직의 사회적 위상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적인 의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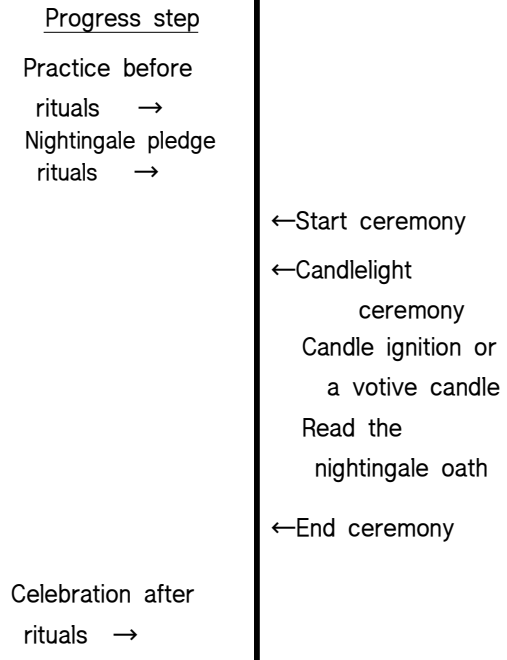


Figure 1. Performance of Nightingale rituals

## 2. 나이팅게일 선서식 의례의 의미

나이팅게일 선서식 의례는 학생에서 간호사가 되는 다짐의 의식으로써 의미가 있다. 선서식의 의례는 간호학과 2학년 학생이라는 신분에서 분리되어 간호사라는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문지방

으로써 의미가 있다. 즉 학생에서 간호사라는 전문인이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다. 의례과정의 이러한 경험은 곧바로 새로운 역할에 대한 다짐과 굳은 결심으로 이어진다. 즉 ‘건널 수 없는 강’에 대한 인식은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게 하여 자기규정을 명확하게 한다. 이는 개인적 자아(I-identity)와 사회적 자아(Social-identity)의 균형을 의미한다.

자기규정은 새로운 역할에 대한 본질을 파악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자아에 대한 성찰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간호사가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전문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 1) ‘터닝 포인트’

나이팅게일 선서식에 참여한 간호학과 2학년 학생은 재학기간 중 선서식 의례를 경험하면서 전환학습을 한다. 입학당시의 막연한 전공에 대한 인식에서 간호학이라는 전공과 간호사에 대한 인식이 구체적으로 생기게 된다.

“사람이 태어났을 때 그때 전과 언어를 배우고 난 이후의 사고방식이라든가 마음가짐이 다르잖아요. 학습도 다르구요. 입학했을 때는 막연한 느낌으로 왔는데 이제 여기 와서 배우면서 그런 하나의 의식을 통해서 완전 터닝 포인트 하나까...” (A 집단-참여자1).

“2년 동안 배운 것도 있지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하면서 새로운 간호사의 길에 대한 생각이 들어요” (A집단-참여자4).

이렇듯 어떤 것을 통과하는 의례는 사람들이 한 세계를 건너서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직접적인 통과의례로 해석된다 (Gennep, 2000)는 것이다. 또한 의례의 신성한 상징적인 행위는 의례의 주체들이 일상생활세계에서 분리되는 경험을 하게 한다. 분리단계는 의례에 참가한 주체들이 그 이전에 그들이 속해 있던 사회 층위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표현하는 상징적 행위들을 한다(Turner, 2005). 즉, 나이팅게일 선서식 의례의 촛불의식은 신성한 시공간과 세속적 시공간을 구분하여 의례의 참여자들이 자신이 속

해있는 사회에서 분리되는 것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행위(Turner, 2005)로 볼 수 있다. 나이팅게일 선서식 의례의 상징적인 행위들은 간호학과 2학년 학생에서 간호사라는 정체성 형성의 상징적 행위로서 의미가 있다.

### 2) ‘건널 수 없는 강’

의례과정의 참여자들은 문을 열고 문지방을 넘어선 순간 모든 것을 받아들여지게 되는 경험을 한다. 즉 나이팅게일 선서식 의례는 간호학과 학생에서 간호사라는 직업세계의 전문가를 받아들여야 하는 전이 단계로 볼 수 있다. Turner(2005)가 설명한 의례과정의 전이(transition)현상에서 나타나는 겸손함과 신성함은 나이팅게일 선서식 의례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며 새로운 공동체내의 질서와 관련된 가치와 행동패턴을 익히는 것을 의미한다. 간호학과 학생들의 ‘건널 수 없는 강’에 대한 경험은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다짐과 간호사 직업에 대한 가치와 질서를 받아들이는 계기가 된다.

“저 말고도 주위사람들도 ‘아 이제 너는 자연스럽게 그냥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생각 하게 되고 다시 한 번 더 ‘간호학과에 왔구나’ 라고 느꼈어요” (A집단-참여자9).

“선서식 멘트에서 자기를 희생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마음가짐 같은 게 더 진지하게 되고 ‘이제 정말 진짜 간호사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 되었어요” (C집단-참여자2).

나이팅게일 선서식 의례 과정에서 간호학과 학생들은 간호사의 길을 숙명으로 받아들인다. Gennep(2000)은 한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의 또는 특정의 사회적 또는 우주적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의 통과에 수반되는 모든 의례에 주목하였다.

“인간의 생활은 비슷한 끝과 시작의 연속적 단계-출생, 사회적 사춘기, 결혼, 아버지가 되는 것, 상층계급으로의 이동, 직업적 전문화, 죽음-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하나하나의 사건에서 의례가 행해진다. 의례의 근본적인 목적은 개인이 어떤 명백

한 지위에서 또 다른 명백한 지위로의 통과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Genep, 2000).

3) ‘나는 생명을 살리는 의료인’

나이팅게일 선서식 의례의 과정에서 간호학과 학생들은 간호사의 책무를 학습한다. 수업의 과정에서 간호사의 역할과 자질 등을 배우지만 나이팅게일 선서식 의례는 더 강렬하게 간호사의 역할이 학습된다. 이러한 측면을 Turner(1996)는 의례의 과정에서 새로운 역할을 학습하거나 좀 더 높은 층위의 문화를 학습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번 선서식 하면서 느낀 것이 의사는 자신의 전공만 파고들고 수술만 하지만 사실 병원에 가보면 수술 준비 전까지 모든 걸 간호사가 해야 하잖아요. 의사의 수술이후 환자의 회복과정도 간호사가 맡아서 하니까 진짜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사람은 간호사라는 생각이 들고요, 환자의 상태를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최측근이 간호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라는...(A집단-참여자 6).

“내가 이제 의료인이 되었다는 뭔가 이렇게 마음에 딱 생기고... 선서식 하기 전의 막연함이 그대로 없어지고 사명감이 생기고...(A집단-참여자2).

간호학과 학생들은 이러한 생명에 대한 소중함의 인식을 나이팅게일 선서식 의례를 통해 강하게 인식하며 의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간호사로서 환자의 생명을 소중하게 다루어야 하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의례는 의례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동안 가지지 않았던 능력을 획득하도록 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특정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게 한다. 즉 정체성, 역할, 지위, 권위의 변화이다(Yoon, Yi, 2014). 또한 간호사가 간호 실무에서 부딪치는 윤리적인 이슈들로 삶과 죽음에 관한 문제, 인간관계에 관한 문제 등으로 분류(Kang, 2006)되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간호학과 학생들은 이러한 간호 실무에서 갖추어야 할 윤리적 소양인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을 나이팅게일 선서식 의례에서 학습하게 된다.

3. 나이팅게일 선서식 의례의 공동체 결속력

1) ‘다함께 잘 해야지’

오늘날 공동체는 개인과 공동체의 성장을 위하여 집단 정체성과 결속이 필요하다. 특히 조직의 문화는 아이콘, 스토리, 의례를 통하여 집단의 결속을 강화하려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나이팅게일 선서식 의례는 한 개인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써 공동체를 인식하는 경험을 준다.

“춧볼도 친구들이랑 다 나눠서 하니까 그리고 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을 하니까 공유의식 같은 느낌...” (B집단-참여자7).

“내가 틀리면 이 의식을 망칠수도 있구나, 다 같이 타이밍에 들어가고 내가 틀리면 우리가 다 같이,, 많은 생각도 들고 많은 감정이 북받쳐도 씩씩함을 유지하면서 다 같이 잘해야 아니까요” (B집단-참여자6).

의례과정의 절차와 상징적 행위는 집단의 기억을 공유하게 하고 이러한 추억과 기억들이 서로 교환될 때 참여자들은 다른 공동체와는 차별화된 공동체의 일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의례의 참여자들은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의 일치된 정체성(Lee, Ha, 2014)을 형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례는 공동체의 창조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의례에서 경험하는 정서는 개인에게 공동체의 소속감과 단란함을 부여한다. 의례는 개인과 집단을 함께 묶어주는데(Greenman, 1998), 개인은 반복되는 의례를 통해 공유된 기억과 추억, 정서를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의례의 반복은 다음 세대까지 유지되고 강화(Wulf, 2013)되어 집단전체의 결속력을 강화한다.

2) ‘끈끈해지고 돈독해짐’

나이팅게일 선서식 의례는 참여자인 개인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공동의 기억과 정서를 공유하게끔 한다. 의례의 절차에 따른 연행적인 행위에서 참여자들은 특정 정서를 공유하는 경험을 한다.



이는 집단정체성과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는 기제로써 의미가 있다.

“선서할 때 뭔가 끈끈해지는 것 같아요. 갑자기 속에서 확 올라오면서 울컥 하면서 그러면서 선서는 틀리면 안되니까 집중해야 하고...” (A집단-참여자8).

“그러니까 나중에도 힘들면 뭔가 의지할 사람이 이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유대감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감정을 다른 학생들도 느끼고 있을 것이고, 계속 같이 갈 사람들이니까...” (B집단-참여자1).

이러한 강렬한 집단적 정서와 공동의 기억은 공동체의 해체를 막을 수 있으며, 이에 의례의 연행은 공동체 형성에 결정적이게 되며 의례의 무대화는 공동체와 그 공동체를 창조하는 문화의 심층구조를 엿볼 수 있게 해 주는 ‘창문’이 된다 (Wulf, 2013). 의례과정에서의 정서는 모두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다함께 한다는 특성으로 공동체의 결속은 해체되지 않고 강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서는 공동체의 연대감을 유지하고 발전을 촉진한다. Collins(2004)는 배우들이 다양한 형태의 ‘상호작용 의례 사슬(interaction ritual chain)’에 참여할 때 발생하는 ‘정서적 에너지(emotional energy)’가 집단 정서를 형성하고 사회적 연대와 재생산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 4. 나이팅게일 선서식 의례의 무형식 학습

간호학과 학생들은 일상 강의내용보다는 나이팅게일 선서식의 의례에서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학습을 보다 강하게 경험한다. 또한 간호학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고 평생 공부해야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하게 된다.

##### 1) ‘평생공부, 나와야 약속’

나이팅게일 선서식 의례에 참여하는 간호학과 학생들은 자신들의 생활을 성찰하고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는 바, 간호학과 학생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자각하고 현재 공부를 무조건 열심히 해야겠다는 무형식 학습을 한다.

“선서식 하는 동안 그동안 잘못했던 게 떠올라지고 오히려 선서식 이후에 공부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무식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A집단-참여자1).

“수업시간에 교수님들께서 촛불처럼 헌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셔도, 이런 강의 때는 대충 들었는데 선서식 때는 감정이입이 되면서 교수님들의 하는 말이 다 들리고 하나하나 귀에 새겨들게 되는 것 같아요” (C집단-참여자3).

나이팅게일 선서식 의례는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공부에 대한 의지와 다짐을 하게 되는 무형식 학습이 이루어진다. 교육학적으로 시작된 의례들은 주로 학교라는 형식적 공간에서 교사가 학생의 더 높은 수행을 동기화시키기 위해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McCadden, 1997). 이는 형식적 학습과정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보다 의례과정의 무형식 학습과정의 가능성을 제시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나이팅게일 선서식 의례는 간호학과 학생으로서 간호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된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간호학과 학생의 통과의례인 나이팅게일 선서식 의례를 연구하여 의례의 교육적 의미에 관한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즉, 의례의 긍정적인 측면인 집단 정체성 형성과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할 수 있는 의식으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밝히고자 한 것이다.

의례적 접근에 관한 유아교육이나 평생교육의 영역에서 연구되어진 것과는 다르게 간호학 연구에서 의례적 접근은 나이팅게일의 사상을 의례과정에서 이어받을 수 있으며 간호전문인으로서 가치와 질서를 내면화 할 수 있다. 간호학과의 나이팅게일 선서식 의례는 간호학과 학생들의 간호사 정체성 형성과 간호사라는 전문직 공동체의 연대와 결속이 가능하였다. 나이팅게일 선서식

의례에 참가한 구성원들은 ‘터닝 포인트’로 전환 학습으로 학생이라는 신분에서 분리되어 간호사라는 전문직의 선택을 받아들인다. 또한 ‘건널 수 없는 강’이라는 의미로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경험하며 자신의 직업세계에 대한 굳은 결심을 하고 간호사 직업의 가치와 질서를 내면화하는 전이단계를 경험한다. 또한 간호사라는 직업인의 가장 중요한 윤리적 소양인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자신이 간호학을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다짐을 한다.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간호학과 학생들이 ‘다함께 잘 해야지’라는 의례의 절차를 수행함으로써 ‘끈끈해지고 돈독해짐’을 경험하여 공동체의 연대와 결속을 다지는 의미가 있다. 의례 속에서 나타나는 무대는 하나의 “공공성”(Wulf, 2013)을 형성하며 의례적 행위는 “집단정체성”(Wulf, 2013)의 형성을 지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례가 지니고 있는 교육적 의미의 잠재성은 창의적이고 상징적이며 연행적인 특성에 있으며 의례는 사회적, 문화적 학습과정의 여과기능을 가진다(Yi, 2013). 더불어 나이팅게일 선서식 의례의 ‘평생공부, 나와의 약속’이라는 무형식 학습 의미는 일정한 형식적인 교수-학습과정을 넘어서는 확장된 학습의 효과적으로 이해될 수 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의례가 간호교육연구에서 가지는 사회적 기능과 교수-학습방법에의 적용 가능성과 현대사회에서 해체되고 있는 공동체의 결속과 유대가 의례과정으로 충분히 복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맥락에서 간호영역의 공동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복적이고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는 연례행사인 통과의례의 긍정적 측면에 관심을 가지고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간호사를 양성하는 대학의 직무교육에서 간호사 정체성에 대한 교육적 접근과 간호사의 임상현장 직무수행에서의 경험하고 직면하게 되는 윤리적 딜레마나 간호사 가치관의 혼란을 특정의례를 통하여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 따라서 간호학과의 통과의례인 나이팅게일 선서식 의례는 간호사의 정체성 형성과 예비간호사 공동체의 결속, 간호교육현장에서의 무형식 학습과정으로 교육적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 기반하여 간호대학에서의 교육적 접근이 임상 간호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연계되어 간호사직무와 역할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는 기제로서 작용이 될 수 있음에 주목하고 임상현장에서의 통과의례에 대한 후속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 Reference

- Bourdieu, P.(1977). Outline of a theory of prac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tanzaro, A. M.(2002). Beyond the misapprehension of nursing rituals. *Nursing Forum*, 37(2), 17~27.
- Collins, R.(2004). Interaction chain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Durkheim(1992). Elementary forms of religious life. (No, Che-Jun · Min,Hae-Suk Tr.) Seoul: Minyoung sa.
- Geertz, C.(1973).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New York: Basic Books.
- Gennep, A. V.(2000). The Rites of Passage. (Jyun, (Kung-Su Tr.). Seoul: Eoulyoumoonhasa.
- Go, Myng-Suk · Kim, Thae-Suk · Min, Sun · Park, Jong-Sun · Yeom, Young-Hee et al.(2011). An introduction to nursing(3th). Seoul: SoomoonSa.
- Greenman, J.(1998). Paces for childhoods; making quality happen in the real world. Redmond, WA: Child Care Inforation Exchange.
- Jeun, Ha-Min(2012). Moving subway, transforming identity. Master’s thesis.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 Kang, Hwa-Jeong(2006). A concept development about ethical decision making of nurses using hybrid model. Doctoral dissertation, Seoul: Hanyang University.
- Kim, Sung- Jae · Kim, Hoo-Ja · Lee, Kyung-Ja · Lee, Sun-Ok(2000). Focus group method. Seoul: Hyunmoon Sa.
- Lee, Yu-Na · Ha, Yu-Ran(2014). Validation through

- perceptions between leader and team members on collaborative competencies in corporate organization. *The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26(2), 284-295.
- McBurney, B. H. · Filoromo, T.(1994). The Nightingale pledge: 100 years later. *Nursing Management*, 25(2), 72~74.
- McCadden, B. M.(1997). Lets get our houses in order: the role of transitional rituale in constructing moral kindergartners. *The Urban Review*, 29(4), 239~252.
- Miracle, V. A.(2009). National nurse week and the Nightingale pledge. *Dimensions of Critical Care Nursing*, 28(3), 145~146.
- Sahlins, M, D.(1976). Culture and practical reas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Turner, V.(1996). From ritual to theatre. (Lee, Gi-Woo Tr.) Seoul: Hyundae-mihaksa.
- Turner, V.(2005). The ritual process. (Park, Geun-Woun Tr.) Seoul: Korean psychology therapy research institute.
- Wolf, Z. R.(1993). Nursing rituals: doing ethnography. NLN Publications, 269~310.
- Wulf, C.(2010). Identity and ritual. London. Tufnell. Press.
- Wulf, C.(2013). Anthropology: a continental perspectiv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Yi, Byung-Jun(2013). A study on educational meaning of ritual.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Studies* 8(4). 227~236.
- Yoon, Gab-Jung · Yi, Byung-Jun(2014). Ritual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studies: topics and perspectives.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Studies* 9(1). 43~60.
- Wikipedia(2015, June 16). Nurse's cap. Retrieved June 16, 2015, from <https://en.wikipedia.org/nurse's cap/>

- 
- Received : 08 June, 2015
  - Revised : 18 June, 2015
  - Accepted : 22 June, 2015